



민주당 2호 공약은 '벤처 강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성진(왼쪽 세번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에게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이해찬·이낙연 투톱 선대위' 뜬다

### 현역 하위 20% 개별 통보 착수...명단 공개는 않기로 238개 지역구 후보 공모 ... 이르면 다음주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에 착수하는 등 4·15 총선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든 의원 22명에게는 지난 주말부터 개별 통보가 시작됐다. 당구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48시간 이내에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21일 회의에서 이의신청 기한 시작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하위 20% 해당자 명단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명단 공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하위 20% 명단 전체 공

개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정치적 망신 주기를 넘어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공관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명단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21일 회의에서 이 내용에 관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개별 통보되더라도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설 연휴가 지난 뒤인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낙연 특별선대위원장의 '투톱 체제'로 일단 선대위를 띄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는 '광역별 공동선대위'의 진용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이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 모든 것을 확정할 것까지 없고, 단계별로 선대위를 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는 전라권 전 대상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 공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 심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3년 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 총선 2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가 육성되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 원 조성 및 '에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 평화당 "20평 아파트 100만호 1억에 공급"

### 총선 1호 공약 발표

민주당평화당은 20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호, 1억에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 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공약을 공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으로 20평 아파트

100만호를 1억에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계획도 포함했다. 정 대표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야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미 실현 경험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기다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국당-새보수당, 통합열차 다시 출발

### 통합협의체 구성 합의...설 연휴 전 황교안-유승민 회동 추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20일 양당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빠졌던 양당의 통합논의가 이같이 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이날 오전 하 책임대표가 "오늘까지 통합협의체를 거부하면 자강의 길을 가겠다"며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하고,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면서다. 양당이 합의한 통합협의체는 보수·중도 세력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기본적 통합 논의는 혁통위에서 진행하되, 통합시 정당 간 재산 배분과 같은 실무적 논의는 양당 협의체를

통해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통합협의체의 창구 역할을 혁통위위원 김상훈·이양수의원 중 한 명이 맡겨 연속성을 꾀하기로 했다. 새보수당은 21일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대표와의 설 연휴 전 만남 역시 "실무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다"(김상훈 의원)고 밝혔다. 한국당은 양당 통합협의체를 새보수당 뿐 아니라 다른 통합 주체들과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안철수 전 의원뿐 전진당 4.0(전진당)이나 우리공화당 쪽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 대검·중앙지검 검사 전국 균형 배치

###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식의 파격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


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 관행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靑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변호사

### 청와대 비서관 인사...조영철 재정기획관 등 5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기획관에는 조영철(60)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5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각각 발탁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는 김제남(57) 전 국회의원의,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55) LH 주거복지정보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김미경 선임 균형인사비서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

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조영철 선임 재정기획관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김제남 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덕성여대 사학과를 나와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변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